

남북한 문화이질화 현상과 문화통합의 실천적 과제

김 증 희*

차 례

- | | |
|----------------------------------|----------------------------|
| I. 서론: 통일문화의 개념과 접근 방식 | III. 남북한 문화이질화 현상의 비교와 문제점 |
| 1. 남북관계의 난제와 문화개념 | 1. 문화와 문화제도적 측면 |
| 2.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당위성
또는 유의성 | 2. 언어적 측면 |
| II.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과 한계 | IV. 남북한 문화통합의 구체적 실천방안 |
| 1. 남북한 문화교류의 기본적 전제 | 1. 독일통일의 사례와 교훈 |
| 2. 남북한 문화교류 현황 | 2.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 |
| 3. 남북한 문화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 V. 통일문화의 새로운 선언과 방향성 |
| | 1. 통일문화의 새로운 목표와 활동 계획 |

I. 서론: 통일문화의 개념과 접근 방식

1. 남북관계의 난제와 문화개념

한반도의 남과 북 두 체제는 반세기를 넘긴 오랜 대립적 역사 과정의 관성과 서로 다른 목표로 인하여, 그 관계 개선이 극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 양자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그간 상대를 '주적(主敵)'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제 유지의 기반으로 활용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서로 다른 전체적 목표와 그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 체제를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 정세 및 국제적 이해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만큼, 남북 양자가 주체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같은 배타성과 고착성을 갖는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적 문제와 같은 근시성과 한계성을 갖는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간의 문화적 상관성과 교류 문제, 곧 '문화통합' 문제가 하나의 대안이자 거의 유일한 출구로 논의될 수 있다. 민족적 삶의 원형을 이루는 전통적 정서에 수많은 공통점이 있고, 정치·경제 문제처럼 직접적인 갈등 유발의 가능성이 미소하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문화를 통해, 아니 문화적 교류의 발전과 성숙만이 진정한 남북 통합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남북간의 문화통합이라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간 부분적인 언급 또는 연구가 있어 왔다. 남북간의 이질화된 생활양식과 그 내부의 총괄적 부분들을 민족적 단원으로 통합해 나가는 능력과 의지 및 관습의 복합적 총칭¹⁾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남북간의 문화 규범 및 그 실천 정책의 창출²⁾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이를 동질성과 이질성의 상관관계로 설명³⁾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간에는 각기의 문화개념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러한 까닭으로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 보다는 피상적 접근으로 일관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먼저 문화 개념에 있어 남북간의 원론적 의미의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⁴⁾

-
- 1)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을 논한다』, 『북한』, 북한연구소, 1984년 3월호.
 - 2)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안 연구』, 『통일문화연구』(상),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12월호, 14쪽.
 - 3) 임채욱, 『통일문화의 조건』,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206~208쪽.
 - 4)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화예술: 개념과 사회적 영향의 차이』, 남과 북: 문화통

1) 남한의 문화개념: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따위 물질 양면에 걸치는 생활 형성의 양식과 내용을 포함함.

2) 북한의 문화개념: 력사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 문화는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수준을 반영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대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 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개념적 성격을 갖는 ‘문화’를 넘어 ‘문화통합’의 새로운 가치질서와 관계성을 창출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를 실제적 현실에 적용하는 남북한의 문예정책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⁵⁾, 남한에서는 예술가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 공익을 더 중시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 아래 남북한 문화 교류는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남북한 국민 각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각한 편차를 드러내며 이질성의 격차를 확대해 갔다. 예컨대 탈북 동포들을 통해 텔레비전을 매개로 한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태도를 살펴보면, 그 큰 편차를 잘 알 수 있다.⁶⁾ 현재까지의 남북간에 가능한 문화통합의 수준은, 체육 경기에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거나 아리랑을 합창하며 동질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담보하고 있다.

2.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당위성 또는 유익성

먼저 대립과 불신의 축적이 반영된 실체적 형식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이룬 정치·경제적 합의도 사소한 사고 방식이나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파열이 나는 경우를 그간 여러 차례 목도할 수 있었다. 그러

함(<http://www.multicore.org>).

5) 오양렬,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6) 김귀옥,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방안 모색』, 2000 KBS 통일방송 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0, 27쪽.

한 상황의 오랜 지속이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삶의 형식을 규정하는 문화패턴으로 고착화 되어온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 문제의 양금이 문화로 축적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축적된 문화에서 풀리면 모든 매듭이 함께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화는 한 사회의 지식 또는 예술 작업의 총체이며, 나아가 한 민족의 전체 생활 방식과 민족정신의 일반적 성격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문화는 한 국가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각계 각층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장·단기 계획으로 민족통합을 앞당기고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나 군사의 통합, 국토의 통합이 진정한 민족통합이 아니며 그것이 결코 문화통합보다 우선할 수 없다. 문화통합만이 민족통합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단기계획은 민족통합을 앞당기는 것으로, 장기계획은 미래의 완전한 민족통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비록 눈 앞의 화급지사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북간의 여러 부문에서 관계변화의 양상이 확대되는 지금, 즉각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급선무이다.

II.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과 한계

1. 남북한 문화교류의 기본적 전제

남북한 문화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동질적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식하며 그 차이를 이해·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즉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의 폭을 좁히고 동질성 회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으로 시발된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1990년대 들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이 제정되고, ‘남북문화교류의 5원칙’(1990)이 마련됨에 따라 문학예술, 종교, 학술, 이산가족 등 제 분야에 걸쳐서 접촉 및 교류가 시도되었다. 더욱이 1993년에는 남북한 간의 최초의 제도적 장치인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에 따라 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국내외적 정세 변화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남북한 문화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양적·질적으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학술, 예술, 종교, 체육,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예술과 학술 영역을 중심으로 남북 문화교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다.

2. 남북한 문화교류 현황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을 예술분야와 학술분야로 나누어 논의한 대표적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술분야

예술교류를 목적으로 남북한을 왕래한 경우는 1990년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통일음악회와 중앙일보의 문화유적답사 협의를 위한 방북(1997.9), 리틀 엔젤스의 평양공연(1998.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1999.12)와 ‘민족통일음악회’(1999.12), 평양학생소년예술단(2000.5), 평양교예단(2000.5), 평양교예단(2000.5), 조선국립교향악단(2000.8) 공연 등이 있으며, 남북합동 춘향전공연(2001.2)과 남한 가수의 북한 공연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의 북한미술품 전시, 남북 합동 사진 전시, 북한 영화 수입 및 상영 등이 있었으며 남한 영화인들의 방북(2000.11)이 성사되기도 했다.

그 외 제3국에서의 교류는 뉴욕의 ‘남북영화제’(1990.10), 일본에서 열린 ‘환동해 국제예술제’(1991.5), 북경의 ‘남북코리아 서화전 및 세미나’(1991.5), 사할린의 ‘통일예술제’(1991.8, 1992.8), 동경의 평화미술전(1997.10)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교류는 민족의 공동체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인 교류 방법이다. 앞으로는 전통예술 및 문화 유적 등에 대한 연구 교류와 함께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등을 국내 혹은 제3국에서 개최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터이다.

2) 학술분야

남북한 학술교류는 1989년 런던의 '유럽한국학대회'에서 남북한 학자가 처음으로 공식 접촉한 이래 비교적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중국 등 제3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점차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로는 성균관대학교와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의 남북 대학 간 최초의 자매결연(1998), 남북한 학자 및 조선족 학자들이 참가한 '연변대학 창립 50주년 기념학술회의'(1999.7) 및 2001년에 성사된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운영 합의 등이 있다.

한편 학술회의는 점차 정례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정례화된 학술회의로는 매년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1999년 5차), 북한 동북아 미국 등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북아 경제포럼'(1997년 7차), 2년마다 미국 버클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1998년 6차) 등을 비롯하여 '고구려 국제학술대회'(1997년 3회),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1997년 4차), '남북 청년학생 통일세미나'(1999년 5차),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연길, 1999년 4차> 등이 있다. 1999년 8월에 개최된 통일연구원과 연변대학, 북한사회과학원의 학술회의는 학술분야에서 준정부적 차원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

제3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중국의 북경대, 요녕대, 길림대, 연변대 등에 소속된 연구소와 오사카 경제법과대, 국제고려학회 등이 남북한 학술교류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제3국에서 개최되는 정례화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컴퓨터, 언어학 학술토론회 등 사상적 갈등이 적은 분야는 물론 이념성이 표출될 수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평화체제, 민족주의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⁷⁾

3. 남북한 문화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남북한 문화교류는 내용의 다양화와 양적 증대 및 남북한 간 직접 교류, 남북 쌍방통행의 교류·협력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에 따른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남북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⁸⁾

1) 2000년에 성사된 세 차례의 북한 공연예술단의 서울 방문과 최근의 공연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교류·협력의 대부분이 남측의 예술 단체들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균형있는 남북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남북한 문화교류 사업은 북측과의 합의 이후에도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3) 문화 교류·협력에 있어 북한측의 과도한 혹은 실비용 이상의 대가 지불 요구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남북의 문화교류가 아직도 단순한 상호교류 제의 및 접촉 또는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기적·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대북 문화교류 및 협력사업에 있어 민간 단체 및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 및 과잉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문화교류가 아직까지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치와 문화간 분리원칙'의 유지를 통해 북한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남북한 문화 교류에 있어 북한과의 교류 채널을 다원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가 대북 교류에 있어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7) 김병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실천과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http://sharing.net>).

8)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통일문답』, 통일교육원, 2001(<http://uniedu.go.kr>).

Ⅲ. 남북한 문화이질화 현상의 비교와 문제점

1. 문화와 문화제도적 측면

남북한 분단의 상황이 50여년에 걸쳐 지속된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이질화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각각의 체제가 그 정부 내에서 운용하는 문예정책 당국의 규모와 성격도 매우 다르다.⁹⁾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오랜 세월을 대변하는 제도적 관성과 두 체제의 문화정책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남한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 불어닥친 민주화 운동의 한 영역으로, 대북 접촉의 시각과 방식을 과거와 현저히 달리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빈발했다.¹⁰⁾ 북한의 경우 국제적 해빙 무드와 동구사회권의 몰락과 관련하여, 1967년 주체사상과 주체문화의 확립 이후 조금의 동요도 없던 문예정책의 방향이 시대적 흐름인 ‘현실 주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¹¹⁾

이러한 변화가 양자가 상호 접촉하는 분야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한반도 기나 아리랑 합창과 같은 단순 소박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또는 합의는,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부분적이고 작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로되 장차 폭넓게 열려가야 할 남북 문화통합의 가도(街道)에 분명한 청신호를 내거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이러한 일들의 접촉 면적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한다.

이와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문화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며, 마침내 그 제도가 의·식 생활이나 명절 풍습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문화의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회복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 이 대목에서는 남북간의 정치적 통합이나 국토의 통합과 같은 실증적 절

9) 최선영, 『북한 문화예술계 현황』,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한국 문화정책개발원, 2001, 113~119쪽.

10) 김종희, 『1990년대의 사회사적 환경과 문학』, 『문학의 숲과 나무』, 민음사, 2002, 64쪽.

11) 김종희, 『해방 후 북한문학의 변화 양상과 남북한 문화통합의 전망』, 앞의 책, 98쪽.

차를 생략하고 서술한 것인데, 이는 그 절차 자체를 우회하거나 뛰어넘는다는 뜻이 아니다.

문화통합의 수준이 그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미 경과적 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이거나 비록 과정으로서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다시 어긋난 길을 갈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하나의 바탕이나 울타리가 동일하게 확정된 마당에, 그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소요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 흐름을 역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사정이 그러할 때 남북한 문화통합의 당위적 성격은, 귀납적으로는 그것이 양 체제의 통합이 완성되어간다는 사실의 징표인 동시에, 연역적으로는 여러 난관을 넘어 그 통합을 촉진하는 실제적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의 예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남북한 문화를 서로 비교 연구하고 문화이질화 현상의 구체적 실례를 적시(摘示)하여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그 여러 항목 가운데 언어적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언어적 측면

1)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심각성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의사 소통 시 그 의미전달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을 때 언어 이질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이질화는 문법 체계와 음운 체계의 변화, 어휘의 발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할 때 현재 남북한 언어는 확연한 이질화가 진행된 경우이다. 같은 대상이라도 다른 표현을 하는 어휘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 방식과 생활 패턴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며, 동일한 민족의 언어가 이질화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한 시기를 국토의 분단을 그 시작으로 보고, 이후 발생한 언어 현상과 언어적 사건을 토대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질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통합을 위한 노력은 자연히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언

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다.

2)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역사

한국어는 오래 전부터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통일된 언어를 유지했다. 현대 한국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한글을 전용하되 한역이나 국한문 혼용은 필요에 따라 쓰게 되었다.

1920년대부터 문예론이나 정론체문도 구어체에 가깝게 되었고, 중부방언이 중심이 되어 풍부한 어휘구성이 이루어졌으며 문법과 어휘들도 점차 규범화되어 갔다. 이러한 규범의 확립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1936년 ‘조선어표준말모음’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어는 통일되고 풍부하게 되고 규범화된 언어로 발전하였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은 ‘1. 맞춤법 2. 띄어쓰기 3. 외래어표기법 4. 문장부호 5. 표준어’ 등을 규정하여 한국어 표기법 전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한국어 표기법의 통일과 보급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부터 형태주의를 근본으로 한 현행 맞춤법의 토대를 이룩하였다. 1937년, 1940년에 개정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었다. 이때까지는 남북한의 언어에 차이가 없었다.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면서 한국어는 점차 이질화되기 시작했다. 남한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어를 발전시키다가 1988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수정하였다. 북한은 1954년 ‘조선어철자법’에서 “표준어는 조선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1964년, 1966년에 김일성은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1988년 간행된 ‘조선말규범’의 문화어 발음법 총칙에는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한 전역에 걸친 문화어 운동이 전개되면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가속시켰다.

3) 남북한 언어 규정의 차이

남한은 1970년 초부터 1980년대에 걸쳐 그 동안의 어문규정에 약간의 손질을 더하여 수정하는 한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외래어 표기법’(1986)도 새로 마련하였다. 또한 1988년에 공포한 ‘표준어 사정 원칙’에 “표준말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한다”로 규정하고, 복수 표준어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북한은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을 공포하여 사용하다가, 1966년 7월에 『조선말규범집』을 공포하였다. 이 ‘조선말규범집’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66년 6월에 제정한 것으로 ‘조선어철자법’에 대한 개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가 1988년에 『조선말규범집』을 펴냈다.

4) 남북한 언어 규정 이질화의 극복 방안

우리말은 남북의 분단 이전에는 같은 표준어와 정서법을 사용했다. 언어의 통일된 규범을 시행함으로써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어철자법’을 공포하고, 『조선말규범집』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언어의 분열이 비롯되었다.

현재의 남북한 언어는 맞춤법, 발음법, 띄어쓰기 등에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오히려 어문 규정에 의한 남북한 언어 차이보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문화어 운동’이 남북한 언어 차이의 골을 깊게 한 경향이 있다.

앞으로 남북간의 통일을 대비해 그 언어 차이를 일반 언중들에게 인식시키고, 학문적으로도 ‘규범화된 표준어나 정서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언어의 통합은 어느 한 쪽 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남북한이 이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 남북한은 공히 언어의 차이를 좁히는 데 적극적인 의욕을 가져야 한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 언어의 실상을 언중들에게 알리고 이를 우리의 언어와 통합해 나가는 노력과 국가적 정책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IV. 남북한 문화통합의 구체적 실천방안

1. 독일통일의 사례와 교훈

1) 통일 후에 남은 독일의 사회·문화적 문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의해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있던 독일은 정치·경제체제에서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 후 지금까지 동·서독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많은 문화적·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해야하는 우리 민족에게 독일의 통일 및 통일 후의 진행과정은 주목해 보아야 할 대상이다. 여기서 독일의 문화통합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2) 독일의 통합과정과 문화적 측면의 노력

독일의 통일이 가능하기까지에는 우선 경제적으로 앞선 서독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컸다. 서독 국민들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자 독일의 통일문제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정치적 문제이며, 민족 내부의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따라서 서독은 동서 냉전구조가 종식될 때, 비로소 독일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국내외적 차원에서 통일여건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이는 소위 '작은 걸음'과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을 통해 한편으로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정치질서가 바뀔 때까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여 이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¹²⁾

통일 전 동·서독 양국은 1972년 양국 정부가 기본 조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기본조약 체결 전부터 양국간의 문화, 예술 및 학술, 교육, 체육분야 등의 교류는 진행되고 있었다. 이 당시 동·서독 양국 교류의 특징으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2) 『분단국의 경험과 우리의 과제』, 『통일문답』, 통일교육원, 2001(<http://unicdu.go.kr>).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본조약 체결 후에는 민간 위주의 교류에서 정부 주도의 교류로 확대되어, 동독과 서독의 영화제작소가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양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 등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1986년 양국 사이의 문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화되어, 문화교류가 제도화되었고 이후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문화협정에 이어 양국은 1987년 문화교환 프로젝트에 합의한 후 더욱 더 실제적으로 대규모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이루어나갔다.

1990년 양국간에 체결된 ‘독일의 통일 수립에 관한 동·서독간의 조약(통일 조약)’ 제35조에서는 문화협력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통합을 위한 주요한 사업 영역과 기본원칙이 천명되었다.

3) 독일의 문화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 사실

독일의 문화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 사실들, 곧 우리가 남북한 문화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유의하고 참고해야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¹³⁾

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정체결 이전에 민간분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일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서독 정부는 일시적 선전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아래 대동독 제안이나 교류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모든 가능한 통로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가동하였다.

다) 상대측 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거나 명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교류는 뒤로 미루고,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호응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교류하였다.

라) 일종의 데이터뱅크식 교류협력 종합프로그램을 정부가 면밀하게 주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 추진전략에서 실효를 거두었다.

마) 장기적 안목으로 청소년 교류에 주력하였다.

바) 특수 아이디어 사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였다.

1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이후 독일 문화통합과정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http://ns.kcpi.or.kr>).

사)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여 통일과정과 통일기간에 나타난 의외성의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아) 서독은 통일 후 동독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였다.

4) 문화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

동·서독의 통일은 오랜 기간동안 치밀한 준비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위의 항목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의 여러 문제가 남아 양쪽 주민들 사이에 상호 적대적 감정까지 노출시키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문화적 통합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또한 강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말해준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통일이 결국은 정치나 경제체제의 통합과 같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고 하겠다.

2.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

1) 올바른 통일문화 창출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큰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통합의 계획은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통일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점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통일문화 형성에 있어 각 분야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예술분야의 방안과 학술분야의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한 포괄적인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2) 예술분야의 방안

남북한 문화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분

14)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http://sharing.net>).

야는 예술분야였다. 대중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 정서에 호소하는 형식을 취했던 예술분야의 교류는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술분야 교류가 주로 남과 북 각자의 특색있는 예술형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앞으로의 교류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공연까지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그야말로 실질적인 통일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주로 음악분야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 가) 음악 및 무용 등 남북 전통예술단 합동 공연 및 연주회 개최
- 나) 남북한 공동의 전통악기 연구 및 개량
- 다) 남북 미술, 사진 등의 공동 전시회 개최
- 라) 남북 합동 공동 영화 제작 및 남북 영화 교환 상영
- 마) 비무장지대 등에 남북한 공동 영화촬영소 설치 등

3) 학술 분야의 방안

예술분야의 교류와는 달리 학술분야의 교류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술분야의 교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사상 등의 민감하고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가) 민족 공동 유산에 대한 남북한 공동 발굴 작업 및 학술 세미나 개최
- 나) 남북한 보유의 민족 문화재 상호 교환 전시 및 합동 전시회 마련
- 다) 민족 박물관 설립
- 라) 남북한 표준어 사전 또는 통일 국어사전 공동 편찬
- 마) 첨단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학술 교류
- 바) 컴퓨터 한글 기계화 공동작업 등

V. 통일문화의 새로운 선언과 방향성

1. 통일문화의 새로운 목표와 활동 계획

남북 문제에 있어 시대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통일문화 또는 문화통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은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계획과 통합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회·문화 운동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그 목표와 활동계획을 참조해 봄으로써 통일문화 운동이나 문화통합 운동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목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 및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남북한 간의 문화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활동계획

가) 연구·조사활동: 북한의 문화연구, 교육 및 교과과정 분석, 북한 경제와 남북 교류연구 등에 관한 심포지움을 수시로 개최하여 남북한 비교연구와 상호 이질화된 문화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통일문화 사이버문화관을 설치·운영하며, 임원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북한 현지실사 연구를 수행한다.

나) 남북한 문화 및 언어이질화 현상 비교연구: 경희대 아태지역연구원 및 국어국문학과 공동으로 남북한 문화 및 언어이질화현상에 관한 비교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그 조사연구의 영역을 해외 동포사회, 곧 재중국 조선족사회, 재러시아 고려인사회, 재일본 조선인사회, 재미주·구주 한인사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한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가능 기관의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남북한 문화이질화와 관련하여 경희대 무용학과와 공동으로 춤사위 변화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도 있다.

다) 통일문화대상 시상: 2003년 말부터 연1회,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 통일문

화의 진작과 그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여, 현저한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기구를 선정, '통일문화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 상의 제정 및 시상을 통하여 통일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라) '상해임시정부' 리모델링: 내년부터 상해임시정부 건물을 독립기념관 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범국민적 민간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이질화의 근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환기하는 한편, 이를 극복할 국민적 문화통합 의식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¹⁵⁾

통일문화연구원의 이와 같은 활동 계획은, 향후 남북한 문화통합의 길에 범국민적 참여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試金石)이 된다. 이 문제가 그야말로 민족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이러한 민간 기구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확산되어 나가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유도하고 후원하는 능동적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 통일문화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지금까지 이 글에서 살펴본 것은 통일문화 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방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일, 곧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면서 가는 일은, 결코 말로만 하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서는 진척이 없다.

먼저 남북한 문화이질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그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 문화통합 항목별로 접근 및 성사 가능한 추진 방안의 모색, 남북 공동연구의 가능성 타진과 협력 체계 수립, 민족 고유의 전통과 양식 또는 언어와 습관 등에서 공동체적 공통성 추출 등 여러 방향과 여러 단계의 실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들의 현상적 실제, 변화의 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천 가능한 통일문화 운동의

15) 통일문화연구원, 『통일문화의 새로운 선언』, 2002.

아이템 개발과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정치·군사 문제를 그 밑바탕에서 떠받치고 있는 정치문화·군사문화, 경제·사회 문제를 그 밑바탕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제의식·사회의식이, 남북간에 서로 어떻게 이질화되었고 그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통합의 길로 나아갈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를 하나의 국민운동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동시에 이를 추진해 나갈 방안과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각오와 의욕이 없이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운동 또한 과거 새마을운동의 전례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분명한 대의(大義) 아래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 기구가 서로 연합하여, 공동 노력의 결실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문화, 문화교류, 통일문화, 문화이질화, 남북한, 언어

참고문헌

- 김귀옥,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방안 모색』, 2000 KBS 통일방송 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0.
- 김병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실천과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http://sharing.net>)
- 김중희, 『1990년대의 사회사적 환경과 문학』, 『문학의 숲과 나무』, 민음사, 2002.
- 김중희, 『해방 후 북한문학의 변화 양상과 남북한 문화통합의 전망』, 민음사, 2002.
- 김창순, 『통일문화의 창조운동을 논한다』, 『북한』, 북한연구소, 1984년 3월호.
- 오양렬,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안 연구』, 『통일문화연구』(상),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12월호.
-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개념과 사회적 영향의 차이』, 남과 북: 문화통합(<http://www.multicorea.org>)
- 임채욱, 『통일문화의 조건』,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http://sharing.net>)
- 최선영, 『북한 문화예술계 현황』, 『북한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운영 체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통일교육원,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통일문답』, 2001(<http://uniedu.go.kr>)
- 통일교육원, 『분단국의 경험과 우리의 과제』, 『통일문답』, 2001(<http://uniedu.go.kr>)
- 통일문화연구원, 『통일문화의 새로운 선언』, 2002.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이후 독일 문화통합과정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http://ns.kcpi.or.kr>)

<Abstract>

Practical Subjects of Culture Differenti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m, Jong-Hoi

This article is about practical solution and direction of Korean culture unification movement. This kind of subject will not stop just in oral case.

First, we need correct understanding and analysis about culture differen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vailable solution, corporative foundation, and finding commonness in tradition, language and habits will be followed. And objective study about facts and trends will be accomplished.

Second, development of culture unification movement's items and positive practice are needed. A study for direction of national unification based on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issues is prime subject.

Third, solution and direction for national movement will be needed. It is impossible without that kind of willing. This movement will not be done by government but be done by national level. Government and NGO must cooperate in this way of national culture unification.

Key Words: culture, culture exchange, culture unification, culture differentiation, South and North Korea, language